

《닥터 노먼 베쑨》

이방인들과 동지애를 나누는 혁명 의사 이야기

글_장동석 기자

“다시는 결코 메스를 들면서 그 어떤 생명체일지라도 단순한 기계적인 유기체로 취급하지 않으리라. 사람이란 꿈을 가진 존재다. 이제부터 나의 칼은 육체와 동시에 그 꿈을 구하리라.”

국내에는 아직 이름조차 생소한 노먼 베쑨의 일기 중 한 부분이다. 누군가 의사를 일러,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小醫)라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 의사(中醫)라 하며,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大醫)라 한다”고 했다.

닥터 노먼 베쑨, 국내에는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큰 의사’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결핵의 수술적 치료법 개발 등으로 의학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흉부외과 의사이자 캐나다 공중보건제도 확립에 앞장섰던 보건의료 운동가이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의 반파쇼 투쟁,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과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중군의로 몸바쳐 싸웠던, 혁명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노먼 베쑨는 1939년 11월 13일 중국 정현(定縣) 황석구(黃石口)에서 수술 중 손가락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마오쩌둥(毛澤東)은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라는 제목의 추도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기린다. “베쑨 동지의 정신은 조금도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희생정신과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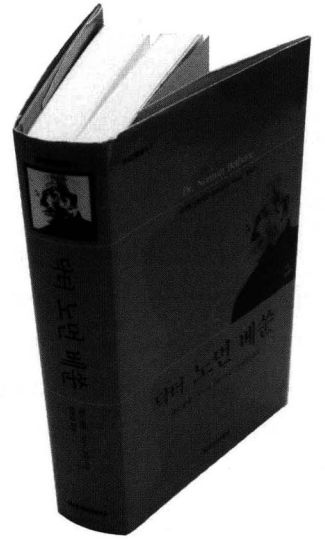
《생명의 칼, 정의의 칼》(The Scalpel, the Sword)이라는 제목으로 캐나다에서 1971년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캐나다와 스페인 그리고 중국에서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방인들과 동지애를 나누는 노먼 베쑨의 의료일지이자 혁명 행전이다. 닥터 노먼 베쑨의 인생과 활동, 사상은 북미 학생들과 네덜란드 노동자들, 독일 의료인들, 이탈리아 지식인들, 인도의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아프리카 투사들, 중국 본토의 거대한 대중들에 의해 자신들의 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이 세르비아어와 히브리어, 중국어 등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이유는 자명해진다.

중국의 한 전선, 두 시간 동안 바위 뒤에 쭈그리고 앉아 적군을 기다리던 중국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사령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가쁜 교전이 시작되고, 돌격을 망설이는 병사들 향해 다급하지만 반가운 외침이 울렸다. “동지 여러분, 돌격합시다! 우리의 부상을 치료해 주기 위해 백구은 선생이 오셨소!” 베쑨을 ‘백구은’이라 불렀던 중국 병사들은 다뤄 수류탄이 터지는 전장으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갔다. 여기저기서 여느 전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돌격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돌격! 부상자들을 위해 백구은이 왔다.” “돌격! 우리 뒤에는 백구은이 있다.”

《닥터 노먼 베쑨》을 읽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시인 이수호가 쓴 〈나의 배후는 너다〉를 읊조린다.

“누구에게나 배후는 있다 / 동해 일출과 서해 낙조 / 떠도는 구름 고운 별무리 / 그 뒤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는 것처럼 / 너의 뒤에도 하늘이 있다 / ... / 그래서 너는 언제나 / 고우면서도 빛나면서도 / 쓸쓸하면서도 / 폭풍우 몰아치고 캄캄하면서도 넉넉하고 당당하다 / 나의 배후는 / 너다”

“누구에게나 배후는 있다”로 시작한 이수호의 시는 어둡한 이미지를 가진 단어 ‘배후’를 아름답게 되살리고 있다. 중국 병사들 ‘배후’에는 ‘백구은’이라 불리던, 베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던 셈이다. 배후로 지목되면 끝장인 세상. 그러나 누군가의 든든한, 아름다운 배후가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김민**



《닥터 노먼 베쑨》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지음 | 천희상 옮김 | 실천문학사
620쪽 | 값 12,000원